

##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설 맞아 '농지은행' 집중 홍보

[이창우]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은 12일 설을 앞두고 광주 송정역에서 귀성객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전남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스시스]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송정역에서 귀성객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농업인과 가족들에게 농지은행사업을 알리고, 고령 농업인의 노후 안정과 청년 농업인의 영농 기반 마련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와 올해부터 시행하는 임대수탁 수수료 폐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공사에 위탁하고 연금 형태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임직원들은 12일 설을 앞두고 광주 송정역에서 귀성객과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 안정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집중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전남본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대수탁 수수료 폐지는 농지를 위탁해 임대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농지 소유자에게 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과해 왔으나 농자재값 상승과 경영 여건 악화를 고려해 수수료 폐지를 결정했다.

위탁자가 농업인일 경우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신규 계약은 물론 기존 계약 농업인도 2026년 이후 부과분부터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김재식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분들께 농지은행사업의 혜택을 직접 설명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농업인들이 평생 일궈온 농지가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